

인천의 도시 정체성은 박물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한국이민사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정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박사과정

손동혁 인하대학교 대학원 문화경영학전공 통합과정 수료, 교신저자(E-mail: sdhyek2@gmail.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가 인천의 도시 정체성 형성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도시의 '출발 신화'가 어떻게 제도화되는지를 규명한다. 인천시는 20세기 초 하와이 노동이민의 출발지라는 역사적 장소성을,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한국 최초이자 최고'의 권력적 기제로 전유해왔다. 분석 결과, 이민사박물관은 '출발 신화'를 민족적 영웅주의에 입각한 단선적 공식 서사로 제도화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강제이주 피해자·해외 입양아·현대 유입 이민자 등의 '대항 기억'은 구조적으로 주변화되었다. 최근 박물관의 송도 이전 논쟁은 월미도의 시민적 대항 기억과 송도국제도시의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는 도시 권력의 공식 기억이 충돌하는 정치적 장으로 드러난다. 이 사례는 한국 지방정부의 도시 브랜딩 욕망이 박물관 전시 서사를 직접 구조화함으로써 대항 기억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억 연구 및 박물관 연구에 기여한다.

주제어 : 한국이민사박물관, 도시 정체성, 기억의 정치, 장소성, 디아스포라

How is Incheon's Urban Identity Forged in the Museum?: A Case Study of the Korea Emigration Museum

Jung, Ji-Eun

Ph.D. Candidate, Digital Culture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n, Dong-Hyuk

Ph.D. Candidate, Department of Cultural Management,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w the 'politics of memory' surrounding the Museum of Korea Emigration History interacts with the formation of Incheon's urban identity, and examines how the city's 'origin myth' becomes institutionalized in this process. Incheon has appropriated its historical spatiality as the departure point for labor emigration to Hawaii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a powerful mechanism of 'Korea's first and best' to elevate its urban statu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emigration museum institutionalized this 'origin myth' into a linear official narrative rooted in nationalistic heroism. In this process, 'counter-memories'—including those of women, victims of forced migration, overseas adoptees, and contemporary incoming immigrants—were structurally marginalized. The recent controversy over relocating the museum to Songdo serves as a political arena where the civic counter-memories of Wolmido collide with the official memory of urban power, which aims to establish a 'global platform' in Songdo International City. This case contributes to the fields of memory and museum studies by demonstrating how the urban branding desires of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directly structure museum exhibition narratives, thereby systematically excluding counter-memories.

Keywords : The Museum of Korean Emigration History, Urban identity, Politics of memory, Spatiality, Diaspora

I. 들어가는 글

한국이민사박물관(The Museum of Korea Emigration History, 이하 이민사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이주’를 주제로 기획되어 2008년 인천 월미도에 개관하였다. 박물관이 위치한 월미도는 20세기 초 하와이 노동이민의 출발지라는 역사적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한인 이민사의 시작을 상징하는 특별한 기억의 서사와 연결된다. 초기 미주 이민자의 상당수가 인천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인천에 이민사박물관이 건립된 것은 초기 미주 이민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인천은 개항 이후 화교를 포함한 다양한 민족과 이주 집단이 유입되며 다층적인 이민의 역사를 축적해 온 도시이다. 그러나 이민사박물관의 전시 구성은 이러한 복합적 이주 경험을 충분히 포괄하기보다, ‘개항장’이라는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 독립운동 중심의 민족주의적 서사,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민족 개념을 전제로 한 확장 서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는 곧 지배 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역 정체성이 일방적으로 규정되었던 근현대사의 맥락이 이민사박물관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물관 리플릿에도 설립 목적이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우리 선조들의 해외에서의 개척자적인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이 뜻을 모아서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민의 역사를 ‘출발 신화’와 민족적 영웅주의에 기반한 단선적인 공식 서사로 제도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이민사박물관의 리모델링과 송도 이전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박물관의 정체성과 장소성이 다소 갑작스럽게 환기되었다. 2024년 공개된 「이민사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보고서」가 “현재 박물관 공간이 관람 동선과 접근성, 전시 기획 및 교육 기능 수행에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물리적 재구성과 콘텐츠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박물관의 방향에 대한 내외부의 비판이 고조되었음을 시사한다(인천광역시 2020). 하지만, 이 계획은 공간 구조의 기능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

국내외 선행 연구를 잠시 검토해보면, 박물관이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공동체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재현하고 공식화하는 권력적 장치임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바다. 토니 베넷(Tony Bennett)은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같은 기관들을 ‘전시 복합체(The Exhibitionary Complex)’라는 개념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 복합체가 사회 개혁의 도구이자 국민 정체성 형성을 위한 근대적 규율 장치로 기능하며, 대중이 지배 계층의 문화적 질서와 지식 체계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Bennett 1995). 캐롤 던컨(Carol Duncan)은 박물관의 공간구조와 전시 동선이 세속적인 의례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문명화된 엘리트 집단의 이상을 관람객에게 주입하는 ‘권력의 공간’임을 강조했고(Duncan 2015), 샤론 맥도날드(Sharon J. Macdonald)는 박물관을 ‘경합하는 기억이 충돌하고 기억의

선택과 배제가 일어나는 정치적 주체'로 명명했다(Macdonald 2003).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국내 이민사박물관 연구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용일(2020)은 이민사박물관 전시가 이민의 역사적 다양성과 지역사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근대화의 전초기지'로서의 인천과 '해외로 진출한 한국인' 중심의 국가 정체성 서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노선희(2023)는 이민사박물관의 젠더 재현 문제를 다루며, 한인 사진신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시 서사에서 여성의 경험이 주변화됨을 논증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특정 도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박물관의 전시 서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공식 기억의 정치'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도시 정체성은 기억의 선택과 배제 속에서 구성되며, 신화화되거나 망각된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은 도시의 다양한 기억을 선별하고, 이를 현재의 정체성으로 제도화하는 권위적이고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미주 이민에서 시작된 인천의 '출발 신화'가 지방정부가 선택적으로 강조해 온 '최초, 최고'의 도시 서사와 결합하면서, 어떻게 권력적 기제로 기능하게 되는지에 주목한다. 이 단선적인 신화는 인천이라는 한국 제3의 도시를 '이민 역사의 출발점'으로 위치시키는 동시에, 한국 근현대사에서 인천이 지정학적 조건을 통해 획득해 온 상징적 가치와 결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는 이민의 역사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이동의 경험으로 조명하기보다, 인천을 '출발지'라는 단일한 상징으로 고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 결과 이민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 노동 이주, 해외 입양 등 비주류적 기억을 공식 서사의 주변부에 위치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개관 17년차인 이민사박물관이 수행해온 '기억의 정치'가 인천의 도시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민사박물관이 대항 기억을 주변화하는 방식과, 인천이 내세우는 '출발 신화'의 빈약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규명할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질적 분석에 기반하며 비판적 담론 분석과 서사 분석을 활용한다. 분석 자료는 1차 및 2차 문헌을 포괄하며, 1차 자료로는 이민사박물관의 상설 전시 구성 및 리플릿을 비롯하여, 인천시의 보도자료와 이민사박물관 관련 계획서를 활용한다. 2차 자료로는 박물관 이전 및 정체성 논란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주요하게 포함한다. 또한, 박물관 현장 직접 방문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 취재했던 전문가(지역 언론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충적인 정보 및 배경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의 깊이를 더하였다. 이러한 질적 및 심층적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역사적 서사로서의 '출발 신화'가 도시의 공식 정체성으로 제도화되고 공공 영역에 재현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인천의 도시 정체성 구성 과정과 이민사박물관 건립의 배경을 살펴며 '공식 기억의 정치'가 작동하는 맥락을 규명한다. 3장에서는 이민사박물관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전 논쟁'을 분석하며, 도시 정체성이 장소의 정치 속에서 어떻게 위협받는지 탐구한다. 4장에서는 박물관의 전시 서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출발 신화'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밝혀낸다. 결론에서는 이민사박물관 사례를 통해 확인된

기억과 도시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며, ‘환대의 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의 유일한 박물관이자 이민을 주제로 다룬 유일한 국내 박물관으로서, 이민사박물관이 변화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조건에 대해 밝힐 것이다.

II. 인천의 ‘출발 신화’와 관제 기억의 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이민사박물관이 ‘인천이민사박물관’이 아닌 ‘한국이민사박물관’으로 명명된 것은, 인천이 한국 최초의 공식 이민 출발지라는 장소성 상징성을 강력하게 내세우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1902년 제물포항에서 출발해 일본을 거쳐 하와이에 당도한 한국 최초 이민자들의 역사가 박물관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특히, 당시 하와이로 떠난 121명의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인천 출신이었다. 당시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가 인천에 있었고, 목사의 권유로 교인들이 이민에 다수 참여하게 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더해지면, 이같은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이 국가적 상징성을 획득하는 관제 기억의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이민사박물관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첫 이민 기념비



한 전직 인천시 공무원의 증언처럼,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시작된 하와이-인천 미술협회 간 교류와 인천시장의 방미, 해외 성금 모금 등이 박물관 건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박물관의 명칭과 설립 과정 자체가 지역적 특수성과 한국 이민사의 상징성이 결합된 결과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한국이민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최초’ 서사를 통해 도시 정체성을 국가적 위상으로 확장하려는 인천시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도시 정체성 확장 전략은 ‘재외동포청 유치’라는 최근의 사건을 계기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립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던 인천시가 2023년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꽤 거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인천이 ‘전 세계 재외 한인에게 모국 활동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되었다(2024년 인천시 보도자료). 이는 이민사박물관이 ‘한국이민사’라는 명칭을 통해 획득한 국가적 상징성을 기반으로, 인천이라는 도시가 추구하는 ‘국제도시’ 담론과 ‘최고’의 위상을 현실 정치 속에서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민사박물관은 도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되며 그 역할 확장에 대한 기대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인천의 도시 정체성 담론은 ‘관제 기억’의 전형적인 생산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제6대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한국 최초이자 인천 최고(最古) 서사¹⁾가 ‘인천 가치 재창조’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의 핵심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서사는 1883년 제물포항 강제 개항으로 근대 문화가 유입되며 형성된 수많은 ‘최초’ 사례²⁾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제 기억이 작동하는 선택적 망각의 역설이 발생한다. 인천이 다수 보유한 ‘최초’ 사례는 외세에 의한 강제 개항이라는 식민-제국주의적 폭력의 기억 위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도시 권력은 이 기원을 충분히 성찰하기보다, 이를 도시의 선도성과 개방성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전유하며 영웅적 최초의 ‘출발 신화’를 강화해 왔다. 예를 들어 1983년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해 온 인천 개항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항 100주년에 맞춰 30m 높이의 기념탑이 완공되고 성대한 자축연 및 축제 행사가 열린 것은, 인천이 개항의 역사를 기념비적으로 공식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³⁾ 이와는 달리 실제로 개항 기념탑을 두고 강제 개항이었으므로 ‘아픈 역사’로 인식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와 함께, 실제 인천 개항의 시기를 372년 비류백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며 기념탑의 몰역사성을 비판하는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이 기념탑은 2003년 완전히 철거되었다. 특히 2002년 인천시와 지역 단체들이 ‘개항 12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려 했을 때, 시민단체들이 “일제가 한반도 침략을 본격화했는데, 행정기관이 이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고, 결국 ‘인천항 개항 120주년 기념행사’가 ‘2003년 인천해양축제’로 명칭이 바뀌었던 사례는 도시가 추구하는 ‘영웅적 개항’ 서사가 비판적 시민 기억과 충돌하는 양상을 명확히 보여준다(오미일·배윤기 2009). 이처럼 인천의 도시 브랜딩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1) 2016년 인천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주요 시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인천을 중심에 둔 인문적 가치와 인천의 정체성을 되찾는다는 취지의 정책들을 전방위로 펼치면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을 선정해 홍보했다.
 2) 서양 무역회사 이화양행, 외국인 묘지, 인천에서 처음 탄생한 음식인 짜장면·짬뽕·쫄면, 인천우체국, 동양연초회사, 내리교회,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야구 도입, 세창양행 숙소, 외국인 묘지 등이 한국 최초이면서 인천 최고 100선에 포함됐다.
 3) 개항백주년기념탑은 개항 100주년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높이를 1백 척(30cm)로 했다는 것이 지역언론에 보도되었다.

‘영광의 기억’으로 전환하는 관제적 서사 전략에 기반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획은 도시의 기억을 탈맥락화하고, 장소성을 소비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인천뿐만 아니라 ‘개항’을 지역의 주요 관광 상품으로 내세우는 군산, 목포 등의 도시들에서도 이러한 비판적 검토는 부재하다. 유정복 인천시장⁴⁾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제3의 인천개항(1883년 인천항-2001년 인천공항-2024년 글로벌 개항)’을 선언했는데, 이는 과거의 ‘강제 개항’조차 도시 성장의 기점으로 재활용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잘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인천의 여타 공립박물관과 비교할 때 그 위상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이는 인천 내 시립 또는 구립, 공립박물관 중 거의 유일하게 인천을 넘어 한국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도시의 핵심 정체성인 ‘출발 서사’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특수성은 인천이라는 도시의 정체성 및 브랜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도시의 국가적 상징성 획득 열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인천의 슬로건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나 과거 슬로건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인천은 ‘최초’ 또는 ‘옴’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닌 도시다. 따라서 이민사박물관이 한국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다루는 유일한 공립박물관이라는 사실은, 인천이 단순한 지역 거점을 넘어 서울의 주변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적 상징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도시의 열망을 반영하며, 박물관이 인천이 추구하는 도시 정체성을 구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인천이 ‘최초’라는 수식어를 적극 활용해 획득하고자 하는 ‘잘 나가는 도시’로서의 이미지 변화와 이민사박물관이 강조하는 ‘출발 신화’는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정체성을 단순한 마케팅 슬로건이나 브랜딩 전략이 아니라, 도시 공동체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역사적 기억, 사건, 장소적 상징, 그리고 현재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얹히며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문화정치적 담론’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천시가 ‘한국 최초 공식 이민 출발지’라는 역사적 자원을 도시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는 과정은 인천이 지향하는 ‘국제도시’라는 정치적 목표에 복무하는 권력적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인천의 국제도시 전략이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개항장 이미지의 강화는 전통적인 구도심인 중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인천의 도시 정체성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제도시 이미지와, 개항장 및 이민 출발지라는 과거의 장소 기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이민사박물관은 인천시가

4) 유정복 시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6대 시장을 지낸 후 2022년 제8대 시장으로 다시 당선되어 재임 중이며, 6대 시장 시절의 슬로건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8대 시장 시절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5) 2013년에 인천 신포동에 개관한 한국근대문학관 역시 공식 명칭에 ‘인천’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근대문학에 특화된 유일한 박물관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선택적으로 조직한 ‘관계 기억’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가 이처럼 ‘최초, 최고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는 이면에는 ‘마계(魔界)인천’, ‘이부망천(離富亡川)’처럼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부정적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다.⁶⁾ 인천시가 내세우는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인선은 한국 철도사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을 지니지만, 오늘날 시민들이 실제 경험하는 지하철 1호선의 현실은 이 상징성과는 거리가 멀다. 불규칙한 배차 간격,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지상철의 구조적 한계, 지상철로 인한 지역의 단절, 그리고 이른바 ‘1호선 빌런’⁷⁾이라는 신조어로 대표되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고려하면, ‘최초의 열차’라는 역사적 자부심은 현재의 도시 경험 속에서 온전히 혹은 긍정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지역 언론의 지적처럼, “도시 이미지가 ‘마계’로까지 떨어진 현실에서 ‘국내 최초가 몇 개고, 최고가 몇 개니’ 하는 인천시의 고색창연하고 고차원적 가치 재창조 정책들”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경인일보 2016/5/17). 2018년 지역사회에서 회자했던 ‘서인부대’⁸⁾라는 신조어는 대구는 물론 부산을 앞질러 인천이 서울 다음의 대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담고 있는 단어다. 대구와 부산의 인구 감소에 비해 인천의 인구는 300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다. ‘서인부대’는 이같은 인구 증가 추세와 인천시의 자신감을 반영한 신조어인 셈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인천의 ‘일등 지상주의’와 최고 지향적 담론은 2012년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에서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공무원 급여 체불 사태를 빚어냈던 도시의 취약한 현실과 대비되는 역설적 풍경을 만들어낸다. 안종욱(2025)의 지적처럼 “결국 과거 수십 년 동안 ‘서울(경성)의 위성도시’로 언급되고, 일제 강점기 이래 경인(수도권) 공업 지역의 핵심 역할을 해 왔으며, 서울의 인구를 분산 수용해 온 베드타운이었던 인천에 대한 오랜 인식이 과거 세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연장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과 인하대학교 내 이승만 대통령 동상에 대한 지속적인 철거 및 존치 논쟁은 인천이라는 도시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겪은 주요 사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지에 대한 복합적인 정치적 쟁점, 즉 ‘대항 기억’의 경합을 첨예하게 드러낸다. 이는 인천이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비극과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성공의 역사를 도시의 정체성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억의 격렬한 경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6) 마계인천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계 인천’은 인천이 악마의 소굴이라는 뜻으로 인천을 비하·조롱하는 대표적 표현 혹은 멸칭(蔑稱)이며, 이부망천은 2018년 선거를 앞둔 TV토론에서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멀쩡한 사람이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지역 비하 발언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7) 지하철 1호선에서 눈에 띄는 독특한 복장과 행동을 하거나 상식 밖의 기행이나 소란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승객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특히 1호선에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노후화된 차량이 많아 승차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는 점이 더해지면서 타 노선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승객 간 갈등이나 기행이 SNS를 통해 자극적으로 소비되었고, 1호선만의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8) 재선된 이후 유정복 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합동 지지 선언식’에서 “민선6기에 달성했던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를 다시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서인부대’ 슬로건을 다시 내세웠다.

이러한 경합의 맥락 속에서, 최근 인천연구원은 “이민사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국립시설 격상 및 이전을 통해 한인 이민사의 상징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민사박물관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국립화 방안』 연구를 내놓았다(남근우 2024). 이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3년간 60억 원의 세금을 사용한 인천시가 이민사박물관 역시 인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욕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두 시설의 ‘국립시설 격상’ 및 ‘국가 매칭펀드 지원’ 주장은 인천이 ‘국가적 상징성’을 내세워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 관제 기억의 정치적 확장 시도로도 해석가능하다.

III. 박물관 이전 논쟁에서 나타난 장소-기억의 경합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장소성은 지역적 특수성(월미도)과 국가가 주도하는 기획(재외동포청, 송도국제도시) 사이의 긴장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월미도는 인천 시민들에게는 위락 시설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와이로 떠난 한국 근대 이민의 출항지로서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집단 기억의 기본을 이루는 핵심적인 장소다. 제물포항에서 출발한 이민자들이 “갑판 위에서 마지막으로 본 고국의 땅이 월미도 남단이었기에 현재의 위치에 박물관이 건립되었고, 이민의 역사, 즉 시간을 봉인하고 있는 듯한 자물통과 그 시간을 풀어내는 쇠대, 또는 하와이의 ‘ㅎ’자를 단순화한 듯한 형태로 박물관이 건축되었다.(최은영 2013)”는 설명 역시 월미도가 가진 장소적 상징성을 뒷받침한다. 개항장이라는 장소성과 ‘떠남의 기억’을 서사화할 수 있는 월미도의 장소성은 이민사박물관이 최초의 이민 역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진정성을 부여하며 박물관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역할 해왔다. 그러나 송도 이전 논란은 이러한 월미도의 ‘최초 이민 출발지’라는 장소-기억의 진정성과 송도국제도시의 ‘미래지향적 국제도시 개발 및 효율성’이라는 도시 개발 이데올로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는 곧 역사적 진정성이 기능적 효율성에 의해 해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2024년 11월, 인천시는 확대 개편 공청회를 통해 박물관의 내용적(세계 한인 이민사 확장) 및 공간적 범위 변경안을 제시했으며, 공간적 변경 2안으로 송도 인천도시역사관으로의 확장 이전을 공식화했다. 인천시는 송도로의 이전 논리로서 박물관의 관람 동선, 접근성, 교육 기능의 노후된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송도국제도시가 재외동포청,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과의 연계 및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에서 장점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박물관의 기능을 ‘역사적 진정성 보존’이라는 장소 기반의 역할에서 ‘국가 정책 연계 및 글로벌 플랫폼 구축’이라는 미래 지향적 기능으로 재규정하려는 도시 권력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월미도의 장소성은 과거의 기억을 상징하는 반면, 송도의 기능성은 재외동포청 유치와 결부된 확장된 관제 기억을 제도화하려는 도시의 전략적 자원으로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송도 이전의 주된 논리는 기능적 이점이다. 재외동포청과의 긴밀한 연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과의 문화 클러스터 형성, 인천국제공항과의 높은 접근성, 그리고 쾌적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점들은 박물관을 송도국제도시와 연결해 현대적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도시의 개발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논리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배웅과 마중의 도시’라는 이민사적 정체성을 송도의 ‘글로벌 교류 허브’라는 확장된 도시 정체성 담론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인천이 새롭게 강조하는 도시 정체성의 핵심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이전 논란이 불거지자 다수의 지역 언론들은 이민사박물관의 장소성을 강조하며 이전 논의에 대한 강경하고도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또한 “월미도의 역사성과 이민 출항지로서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송도로의 이전은 ‘기억의 장소’를 해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2023년 이후 제기된 이민사박물관의 송도 이전 논의는 ‘접근성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시민단체를 포함한 월미도 주민협의회는 “박물관이 위치한 장소 자체가 이민의 역사이며, 이전은 박물관이 가진 증언적 기능을 해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전 반대를 명확히 했다. 반면 인천시는 「이민사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2020)에서 “현 부지는 시설 노후화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교육 및 체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기능적 판단에 대한 비판은 이민사박물관의 위치가 접근성이나 시설 최신화를 넘어, 그 자체가 특정한 역사적 내러티브를 살려내고, 시민들에게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박물관은 시민들의 집단 기억을 재현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하며, 월미도라는 물리적 장소는 ‘최초 이민’이라는 공식 서사를 체감하게 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이민사박물관은 ‘출발 신화’에서 ‘환대의 도시’ 및 ‘이주사 플랫폼’으로 변화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송도는 이러한 확장된 관제 기억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장소로 재규정된다. 송도 이전의 핵심 논리 중 하나는 재외동포청과의 연계인데, 이는 박물관을 국가적 재외동포 정책을 지원하고 상징하는 공적 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로도 해석 가능하다. 송도는 국제 도시 개발이라는 도시 권력의 최신 이데올로기가 투사된 공간으로서, 월미도의 ‘과거 지향적’ 기억을 ‘미래 지향적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담론으로 포섭하고, 재외동포청 유치라는 국가적 성과와 결부시켜 인천의 ‘최고 도시’ 위상을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것이다.

결국 이전 논쟁은 역사적 진정성을 보존하려는 시민적 대항 기억과 도시 정체성을 확장하고 국가적 기능성을 선취하려는 도시 권력의 공식 기억이 장소를 매개로 경합하는 정치적 드라마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기억의 장소 문제가 표상적 수준을 넘어, 도시 개발과 국가 기관 유치라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정치적 실천 영역임을 입증한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Pierre Nora)가 제시한 ‘기억의 장소’를 살펴보면, 노라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환경으로서의 기억’, 살아있는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기억이 쇠퇴하자, 이를 상징적 공간, 기념물, 박물관 등 인위적인 매개를 통해 ‘대리 기억’으로 제도화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러한 ‘기억의 장소’는 남아있는 것인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며,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중립적 저장소가 아니다. 대신, 특정 국가나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조화하기 위해 과거의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강조하며, 침묵시키는’ 문화정치적 행위가 일어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공간이다. 월미도에 위치한 이민사박물관은 지금까지 바로 이러한 ‘기억의 장소’로 기능해왔다. 이민의 출발지라는 장소성을 통해 ‘출발 신화’라는 공식 기억을 구조화하고 지역 정체성을 기억의 구심점으로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러나 송도 이전 논의는 이러한 장소성의 진정성과 상징 체계를 해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곧 공식 기억의 제도적 권위를 둘러싼 장소적 경합 문제로 이어진다.

송도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측은 재외동포청과의 긴밀한 연계, 문화 클러스터 형성, 높은 접근성 등 기능적 이점을 제시하며, 박물관을 ‘역사적 진정성 보존’이라는 장소 기반의 역할에서 ‘글로벌 플랫폼 구축’이라는 미래 지향적 기능으로 재규정하려는 도시 권력의 전략을 드러낸다. 이들은 월미도로 대표되는 구도심의 장소성이 상징하는 과거 지향적 기억을 송도라는 신도심의 기능성이 상징하는 확장된 도시 정체성 담론으로 편입시키려 한다. 하지만 박물관 이전 논란에 대한 대항 기억은 월미도의 역사성과 이민 출항지로서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송도 이전이 ‘기억의 장소’를 물리적으로 해체하여 집단 기억의 구심점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즉, 이민사박물관의 위치는 특정 역사적 내러티브와 정체성을 제도화하는 장소성의 정치적 권위 그 자체라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송도로의 이전은 박물관의 전시 서사가 도시 정체성과 맞물려 작동하는 방식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문화정치적 사건이다. 외교부 산하의 국가 기관인 재외동포청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인천시의 전략은 이민사박물관을 지역적 기념 공간에서 국가적 재외동포 정책을 상징하는 공적 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는 박물관이 기존에 지적받았던 국가 중심적, 민족주의적 서사를 더욱 강화할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이주자 개인의 복합적인 삶의 경험, 젠더 문제, 이주의 실패 등 민족적 대의라는 틀에 포섭되기 어려운 다양한 측면을 주변화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재외동포청과의 긴밀한 연계는 해외 거주 한인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나가는 이민’을 공고히 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민족적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간의 이동 경험과 ‘들어오는 이민’의 현실은 제도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박물관은 ‘나가는 이민’을 포괄하여 진정한 의미의 이주사 박물관으로 확장되는 대신, 국가 정책의 상징적 부속 기관으로 기능하며 이민사의 범위를 오히려 협소하게 만들 위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전 논란은 단순한 공간 이동의 문제를 넘어, 이민사박물관이 어떤 기억을 선택·배제하며, 어떤 정체성을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는 곧 박물관이 국가적 상징성, 지역적 기억, 탈국가적 이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쟁점이다. 더불어 ‘기억의 장소’가 특정 역사적 지리적 맥락에 고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능적 효율성과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시킨다. 인천시가 2019년 개통한 국내 최장 도심형 관광모노레일인 월미바다열차의 역사 이름을 ‘박물관역’으로 명명하고 이민사박물관을 홍보한 것 역시, 박물관의 장소-정체성을 공공 인프라를 통해 강화하려는 전략임을 나타낸다.⁹⁾ 이같은 전략은 이민사박물관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첫 해양문화시설’임을 강조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적용된다 하겠다, 즉, 박물관의 위치는 접근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내러티브와 정체성을 제도화하려는 장소성의 정치적 권위 그 자체인 셈이다.

이러한 기억의 장소성 경합은 2025년 8월에 발표된 「한국이민사박물관 증축 확대 개편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결론을 통해 일단락됐다. 연구용역은 “현 부지의 역사성이 있는 장소에 증축, 건립을 통해 지금까지 구축한 한국 이민사의 정체성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이는 월미도라는 장소-기억의 상징성이 송도의 기능적 효율성 논리에 대해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정은 다수의 지역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시민공청회에서 표출된 ‘이민 역사의 상징성이 있는 현 위치의 중요성’, ‘구도심 중구의 주요 문화 콘텐츠 이전 우려’ 등 지역 사회의 공공 기억과 대항 기억이 공식적으로 관철된 결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이전 논란은 이민사박물관이 공식 이민사를 재현하는 방식과 그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관이 주도해 이끌어간 도시 정체성과 지역사회의 공공 기억이 어떻게 충돌하고 조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박물관은 장소성의 진정성을 유지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동시에, 민족주의적 서사와 출발 신화에 국한된 한계를 벗어나 ‘들어오는 이민’을 포괄하는 비판적 시선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적 책무를 안게 된 것이다.

IV. 전시에 나타난 인천의 도시 정체성 재현

1. ‘출발 신화’의 구조화

9) 2019년 열차 개통 당시 이민사박물관역이었으나, 2024년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박물관역으로 변경되었다.

박물관은 특정 공동체의 기억을 수집, 보존, 해석함으로써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고 공공의 기억을 공식화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이민사박물관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이주 경험을 재현하며, 이는 인천의 ‘출발 신화’와 국가의 민족적 상상과 얽혀 특정한 ‘공식 이민사’를 구축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박물관 개관 이래 수년 전부터 기획전시와 상설전시를 여러 차례 참관한 경험 및 최근 직접 방문하여 수행한 심층적인 현장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이민사박물관 전시가 ‘하와이 이민 출발 신화’, ‘애국적 디아스포라’, ‘글로벌 코리안’이라는 국가 및 도시 주도의 정체성 서사를 전시 공간 전반에 걸쳐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본 장은 현장 관찰 기록을 주요 자료로 삼아 박물관 전시를 대중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생산하고 내면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상정하고, 이민사박물관의 상설전시 구성을 중심으로 박물관이 한국 이민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식화’하고 있는지 그 재현 방식과 내러티브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 틀을 통해 심층적으로 다루어진다. 첫째, 전시 서사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전시실의 배치, 관람 동선, 전시물 간의 순서 및 강조점이 특정한 ‘출발 신화’를 어떻게 구성하고 관람객의 인식에 개입하는지 그 통치적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둘째, 전시 텍스트, 이미지, 유물 배치, 미디어 활용 방식 등의 기호들이 어떻게 이민의 역사를 미화하고 탈각(脫却)된 2차 기억으로 치환하는 의미를 생산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전시 텍스트와 서사에서 반복되는 수사, 누락된 주체, 그리고 중심화/주변화되는 내러티브를 추적함으로써, 관제 기억이 어떻게 냉전적 인식체계와 결합하고 대항 기억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지를 밝혀낸다.

[표 1] 이민사박물관 상설전시실 분석

전시실	주요 내용	서사 전략	대항 기억 배제 방식
제1전시실 (출발의 방)	갤럭시 내부 재현 하와이 이민 여정	인천=공식 출발지 이민=도전의 시작	이주 원인(빈곤, 식민) 축소
제2전시실 (노동, 정착)	하와이 정착 과정 사진신부 등 커뮤니티 역사	개척자, 영웅 서사 독립운동 기여 강조	젠더 맥락 주변화
제3전시실 (디아스포라)	중국, 러시아, 독일, 남미 등 미국 외 이주 역사	민족적 수난 극복 서사 조국 헌신 강조	조선족 현재 현실 및 정체성 배제
제4전시실 (인하관)	인하대 설립 역사 글로벌 코리안 활동	출발 신화의 서사적 완결	비귀환 서사 부재

이민사박물관은 1층부터 2층에 걸쳐 제1전시실부터 제4전시실까지 상설 전시실을 운영하며, 각 전시실은 특정 이민사의 국면과 내러티브를 강조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이민사박물관 전관을 통틀어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내러티브는 인천의 도시 정체성과 결합된 ‘출발 신화’와 냉전적 코드로 분열된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임이 확인된다. 관람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제1전시실은 입구를 최초의 이민선인 갤릭호 내부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하여, 한국인의 미주 이민 역사를 이주 여정 중심으로 조명한다. 이는 전시 서사의 구조적 분석 관점에서, 인천을 ‘하와이 이민의 공식적인 시작점’으로 설정하며, 이후 전개될 모든 이민 서사에 대한 전형적인 프레임을 제시하는 장치이다. ‘미지의 세계로’라는 테마 아래 이민자의 발자취를 전하는 동시에 도전의 출발지로서의 인천을 강조하며, 미주 이민을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민 서사의 시작점으로 공식화한다. 이처럼 박물관은 전시실의 물리적 배치를 활용하여 인천에서 시작되었다는 ‘출발 신화’를 구축하는 통치적 메커니즘을 가동하며, 인천의 ‘최초, 최고’ 신화라는 도시 정체성을 이민사의 근원으로 권위화한다.

이어지는 제2전시실은 한인들의 하와이 정착 과정과 미국 전역에 뿌리를 내린 개척자로서의 발자취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당시 교과서가 전시된 교실 공간,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노동환경, 그리고 ‘사진신부’ 제도를 통한 초기 한인 커뮤니티 형성 서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구성은 남성 중심의 민족주의적 시각에 기초하여 물젠더적인 재현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항 기억을 배제하는 문제를 드러낸다(노선희 2023). 특히 ‘사진신부’의 탄생 배경, 이주 과정의 트라우마, 농장 및 도시에서의 이중적 노동 등 여성들의 개별 기억은 남성 중심의 집단 기억에 종속되어 주변화된다. 또한 전시 곳곳에서 초기 한인 이민자들을 역경을 극복한 개척자이자 영웅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서사를 강화한다. 특히 ‘독립의연금 증서’와 같은 전시물의 기호학적 활용은 고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한인들의 활동을 다루면서, 이민을 단순히 개인의 삶을 개척하기 위함이 아닌 민족적 대의에 기여한 숭고한 행위로 공식화한다. 이는 이민의 1차 기억이 민족적 희생이라는 2차 기억으로 치환되는 관제 기억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이후 전시실은 중국, 러시아, 일본, 사할린, 멕시코, 쿠바, 독일 등지로 확산된 이주 흐름과 해외 입양을 포함한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삶’을 소개한다. 이 부분은 주류 미주 이민사 서사의 부차적 확장으로 다뤄지며, 냉전적 인식체계에 따른 차별적 서사화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만주와 연해주로의 이주, 일본과 사할린으로의 강제 이주는 일제 강점기의 국가폭력과 연결됨으로써 민족적 수난의 역사로 재현된다. 그러나 ‘조선족’으로 불리는 중국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재현하는 전시물은 조선족 자치구 학교 교과서와 명동학교 학적부 등으로 제한되어, 이마저도 민족 정신의 계승과 독립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 중인 조선족의 복합적인 현실과 정체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반서방 진영으로의 이산 경험을 타자화하고 현재적 맥락을 누락시키는 방식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남미로의 경제이민 등 다양한 이민 경로가 소개됨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전시는 서사적으로는 여전히 민족적 의지와 고난을 극복한 서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파독광부간호사협회에서 제작한 기록영화의 제목은 「고난의 벽을 넘어 기적의 라인 강으로」이며, 전시품 중에는 모국 새마을 운동 식수 기념 모금 안내장 등의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제이주, 젠더 문제, 이주의 실패 경험 등 개인의 고통과 비정형적인 측면은 부차적이거나 간략히 다루어져 공식 서사에서 주변화된다.

이민사박물관 상설전의 주요 구성은 ‘출발의 방-노동의 방-정착의 방-현재의 방’으로 이어지는 선형 서사 구조를 갖는다. 입구 벽면에는 하와이행 갤럭호의 흑백 사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향한 항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출발 신화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출은 이주의 복합적 원인(가난, 식민지 구조, 강제노동)을 삭제한 채, 이주를 ‘개척’과 ‘용기’의 미화된 서사로 재구성한다. 또한 ‘노동의 방’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모형과 한인 노동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나,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인종차별의 맥락보다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한민족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서사가 중심으로 다뤄진다. 이러한 선택적 배치는 던컨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람객에게 특정한 감정적 의례를 수행하게 하는 권력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민사박물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전시실은 ‘인하관. 하와이와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이민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는 제4전시실이다. 2018년에 조성된 이 전시실은 전시 서사의 구조적 정점을 형성하며, 하와이로 이민간 한인들의 귀환을 상징하는 전시실로, 선조들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지원의 역사,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활동 등을 통해 현재 진행형의 이민 현실을 조명한다. ‘인하관’은 인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 공공의 기억, 즉 하와이 이민과 인하대학교 설립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전시 서사의 구조적 완결점이자 공통 기억의 현재화가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제시한다. 하와이 이민의 성과가 인하대학교 설립이라는 교육적 성취와 조국 헌신으로 귀결되며, 이 공간이 물리적 동선의 끝이자 서사적 절정에 위치함으로써, ‘출발 신화’가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완성을 관람객의 인식 속에 각인시키는 전략을 보여준다. 이 공간은 이민자들의 고단함과 희생이라는 1차 기억을 조국에 대한 헌신과 조국의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교육적 성취라는 2차 기억으로 치환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전시실의 내용 역시 동포 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해외 한인 축제와 기념사업 등의 내용은 이민자들의 조국에 대한 기여를 상징적으로 부각할 뿐, 이주자 개인의 다양한 내러티브나 복합적 정체성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2018년 일부 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사박물관의 상설전시는 미주 이민 중심의 ‘출발 신화’와 국가주의적 서사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한계는 상영 중인 〈우리는 모두 대한인입니다〉 영상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영상은 “이민생활의 고단함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강조하며, 시대를 막론하고 이민의 역사를 민족주의적 희생과 성공의 서사로 축소시키는 관제 기억의 핵심 담론을 재생산한다.

[그림 2] 한국이민사박물관 인하관 입구



제4전시실의 ‘인하관’이 보여주는 서사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신적 귀환’을 강조하는 전시에서조차 이민사박물관이 민족주의적 서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코리언의 이주 역사를 ‘식민 트라우마’와 ‘민족≠국가’의 어긋남이 착종된 이산(離散) 트라우마로 보지 않고, 분단국가 수립 이후의 ‘이민(移民)’이라는 단선적인 성공 신화로 포획하려는 관제 기억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다. 박물관이 ‘나가는 이민’을 독립운동의 하위 범주 혹은 민족적 대의에 기여한 성공적인 서사로만 다룸으로써, 이산되어 간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고통이나 냉전적 코드 속에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비정형적 삶을 주변화하는 재현의 편식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민사박물관의 전시는 “박물관이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재의 정체성과 갈등, 다양성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샤론 맥도날드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민족주의적 서사에 집중되어 있다(Macdonald 2003). 이는 들어오는 이민, 즉 현대 인천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삶과 기억을 의도적으로 주변화하고 대항 기억을 배제하는 관제 기억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민사를 ‘국가적 기획의 일부’로 재현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이산 트라우마의 복합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중심주의’적 시선을 강화한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재이주한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이해할 수 없는 타자’로 인식한다. 결국, 이민사박물관은 관람자가 과거의 이산 주체와 공감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설정을 하는 대신, 유물 수집의 한계와 실유물 중심주의라는 구조적 제약을 통해 미주 이민 중심의 ‘출발 신화’를 지지하는 물리적 증거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전시 서사의 편향성을 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박물관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직면과 사회적 치유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도시 정체성과 국가적 이념을 강조하는 냉전적 기억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민사를 ‘국가적 기획의 일부’로 재현하는 방식은 개인적이고 비정형적인 이주 경험을 제도화된 관제 기억의 틀 속에 편입시키며, 특정한 정체성을 강조하고 다른 정체성들을 배제하는 기억의 선택적 정치를 수행한다. 분석 결과 이민사박물관의 전시는 비서구권 이주, 젠더, 노동, 난민, 현대 이주의 복합적 현실 등은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거나 영웅적 서사 속에서 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박물관이 ‘국가의 기억’을 재현하는 공식 기제로 기능하는 동시에, 탈국가적이고 유동적인 현대 이주 현실과 이산 트라우마를 외면하는 편향된 정체성 서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박물관 전시 서사의 편향성은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방안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연결되어 편향성을 구조화한다. 이민사박물관의 유물 수집은 ‘실유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서사를 지지하는 물리적 증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이민사박물관의 소장 유물 총 32,329점 중 기증 유물이 86.2%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상설전시 주제인 미주 지역 이주사와 관련된 것이다(김상열 2013). 이민사 유물은 ‘골동(骨董)’으로서의 가치가 낮고 이주 과정에서 생활용구와 자료들이 소실된 경우가 많아 실물 확보가 어려우며, 유일한 문서나 전적류는 영인 및 복원 형태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유물 수집이 기증에 크게 의존하고 실유물 확보에 제약이 많다는 특수성은 결과적으로 특정 이민 서사를 지지하는 물리적 증거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전시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 경향을 강화한다.

2. ‘현대’ 전략과 기억의 재배치

박물관 차원에서 전시 구성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민사박물관은 2018년 전시 공간 개편을 통해 이전보다 확장된 이민사 스펙트럼을 담으려 시도했다. 남미 이민사 비중을 줄이고 아시아 및 유럽 코너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사를 포괄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독 한인 남영자 씨, 인천 산곡동 ‘성 원선시오의 집’ 서재송 전 원장 등이 기증한 해외 입양 관련 자료들이 소개되도록 아시아·유럽지역 코너를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담론 분석 관점에서, 젠더 및 국가 책임 회피의 문제와 얽혀 기존 공식 서사에서 주변화되었던 대항 기억 중 일부를 박물관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시는 여전히 ‘미주 이민 중심의 ‘출발 신화’라는 구조적 편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제4전시실에 신설된 ‘인하관. 하와이와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은 박물관이 지역사회의 공공 기억을 공식화하고 도시 정체성 담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한 인상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인하관

신설의 가장 큰 의의는 지역에서 구전되던 분절된 기억과 하와이 이민자들의 정신적 귀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 승격시키고 통합했다는 점이다. 이 전시실은 인천의 ‘출발 신화’를 국가적 스케일로 확장하며 전시 서사의 구조적 완결점을 형성한다. 인하대학교가 1952년 하와이 동포 이주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는 점,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된 하와이 교포들의 모금과 성금이 그 기반이 되었다는 점, 인천(仁川)과 하와이(荷蛙伊)의 첫 자를 따서 교명이 만들어진 사실들이 이 공간을 통해 기념비적 역사로 자리 잡는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 ‘하와이-인하 공원’이 조성된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 하겠다.¹⁰⁾ 이러한 기억의 공식화는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인천에서 인하대가 흔히 ‘인천의 하버드’로 불리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인천과 하와이와의 연결고리를 공공기관을 통해 전시함으로써, 인천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최고’ 신화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역사적 근거를 들어 확고히 제도화한다. 이는 박물관이 공공의 기억을 보존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 기억을 도시 정체성 담론을 강화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역 서사를 다룬 인하관의 사례만큼이나, 해외 입양 아동을 다루는 전시가 마련된 것은 한국 해외 입양의 역사를 공적인 기억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362점에 달하는 기탁 자료가 확보¹¹⁾되었음에도 실제 전시 규모가 소규모에 그치며, ‘해외 입양의 역사’와 ‘해외 입양인들의 영원한 고향, 인천’이라는 단선적인 주제로 구성된 것은 전시 서사의 구조적 한계와 비판적 성찰의 부재를 시사한다. 분석 결과 현재 전시는 해외 입양을 마치 역사적 사실의 나열처럼 ‘해외 입양의 역사’라는 패널로 요약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 침해, 가족 해체의 비극, 정체성 혼란과 차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미군 기지 근처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에 대한 서술은 당시 사회의 낙인과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서술된다. 더 나아가, 이같은 접근은 그들이 겪는 친가족 찾기의 어려움, 문화적 장벽, 버려졌다는 상실감과 같은 복합적인 이산 트라우마를 감상적인 차원으로 축소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²⁾ 가장 비판적인 지점은 해외 입양 문제를 국가가 주도하고 방관해온 역사적 책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부재하다는 점이다. 1950년대 이후 빈곤과 혼혈아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해외 입양은 아동 중심의 원칙보다는 국가의 편익과 경제적 논리가

10) 인하대 내에 2천479㎡ 규모로 조성된 공원 중앙에 ‘인하의 비상’이라는 조형물이 건립되었으며, 밀알 형태 구조물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조형물 중앙 5개의 밀알은 1902년 인천에서 국내 첫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한 교포들이 이민 50주년을 기념해 1952년 인하대 설립을 추진한 것을 의미하고, 외곽 7개의 밀알은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비상하는 인하대를 상징한다.

11) 서재송 전 ‘성 원선시오의 집’ 원장의 해외 입양자료 기탁식에서 이민사박물관 관계자는 “해외입양은 모국에서 품을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준 아프지만 현실적 선택이었다는 점과 친생 가족과 한민족 공동체에서 그들을 분리시켰다는 이중적 관점이 존재하는데 넓게는 한인 이민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기탁한 자료들의 전시를 통해 이민사박물관과 인천은 해외 입양인들이 모국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 전시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12) 전시가 “인천의 보육시설을 거쳐간 해외 입양인들은 인천을 모국에서의 마지막 보금자리로 기억하면서 입양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모국을 찾아 한국에 돌아올 때에도 가장 먼저 밟게 되는 모국의 땅도 바로 인천이라는 점에서 입양인들에게 인천이라는 도시는 마지막 보금자리이자 귀환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되는 것은 해외 입양인들의 현실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현재까지도 미온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부재하다. 이는 이민사박물관이 공공의 기억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불편한 진실과 책임을 공공 기억으로 공식화하는 데 소극적임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이 전시 서사는 관계 기억이 작동할 때, 특정 집단(해외 입양인)의 고통과 국가의 제도적 폭력을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서술을 통해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사박물관의 전시 개편은 인천 지역의 이민사 연결고리를 공식화하고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인하관’은 박물관이 지역의 특정 공공 기억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전시를 통해 공식적인 역사로 승격시킨 도시 정체성 담론의 제도적 완성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시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해외 입양 관련 전시의 한계는 박물관이 공공 기억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서사와 경험을 어떻게 배제하거나 미화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해외 입양인들의 고통과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복합적이고 민감한 이슈는 여전히 이민사박물관 전시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항 기억들은 공적인 역사 서사에서 주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열린 기획 전시들을 살펴보면, 『동방을 밝힌 등불, 북간도 명동촌』, 『젊음,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다』, 『자이니치 학교들-재일 한인 민족교육』, 『황무지에서 지켜낸 민족혼』,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 『재외동포와 함께한 100년』, 『코리아 아메리칸의 삶과 기억』 등 다수가 이산의 트라우마를 ‘고난 극복’과 ‘조국에 대한 헌신’이라는 영웅적 서사로 포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식민-냉전 시기 이주의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배경과 민족이 국가와 일치하지 않는 식민지 시대의 어긋남을 직시하기보다, 민족 정체성 수호라는 단선적인 국가주의적 서사 틀을 반복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2019년 ‘멕시코·쿠바 한인 이민과 독립운동 특별전’은 이민을 개인의 생존을 넘어선 ‘국가를 위한 고난의 역사’이자 ‘애국적 헌신’으로 공식화하는 관계 기억의 서사 전략을 따랐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 다른 이민, 해외 입양』과 같은 기획 전시는 이민사의 다층적 양상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일부 전시에서 ‘대항 기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역시 부수적 위치에 머물러 있으며, 전시 전체의 내러티브를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기획 전시의 시도만으로는 여전히 상설 전시의 구조적 편향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 또한 이민사박물관이 ‘근대적 민족국가 중심의 역사 관점을 강화하면서도 탈국가적·다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이용일 2020), 박물관의 서사는 여전히 ‘인천에서의 출발-민족적 자긍심을 잇는 통로’라는 단선적 구조에 머무른다.

이민사박물관 내에 상시 비치되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이민사 여권’ 역시 전시 서사의 구조적 편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이 여권은 멕시코 에네켄, 브라질 의류산업, 독일 파독광부·간호사, 하와이 갤럭시 등 애국적이거나 성공적으로 포획되는 이민의 경로만을 강조하고 상징적 아이টে임을 도장으로 찍어 완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담론 분석 관점에서,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권위화한

이주 경험만을 유효한 서사로 인정하며, ‘들어오는 이민’이나 인천 지역과 동시대 ‘디아스포라’가 연결되는 현재적 지점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박물관이 지역 커뮤니티 및 다양한 이주 정체성과의 접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사박물관은 단지 20세기 초 한인의 서구사회로의 진입만을 다루는 것을 넘어, 20세기 중후반의 한인의 이주와 기억 또한 재현하고 있으며, 20세기 전체를 포괄하는 역사박물관으로서 한인의 디아스포라가 복합적으로 재현된 공공역사의 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 박물관 전시 서사의 편협성과 관제 기억의 한계는 박물관 내부에서도 인지되고 있다. 이민사박물관장인 김상열은 박물관이 “러시아 거주 고려인들, 중국의 조선족, 재일동포들”의 이산 트라우마를 포함하여 “유입이민이 증가”하는 다문화 사회의 현실 속에서 ‘나가는 이민’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이민’까지 아우르는 종합 이주사 박물관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김상열 2013). 실제로 박물관장은 현 미주 중심의 전시 범위를 전 세계 한민족 이주사로 확장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유입이민자들을 위한 ‘어머니의 방’을 신설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은 박물관이 이주의 다층적인 현실과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려는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유입이민’의 재현과 ‘귀환입양인’을 디아스포라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떠나간 우리’ 중심의 서사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지형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 계획조차 관제 기억의 딜레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첫째, 유입이민자들을 위한 ‘어머니의 방’은 이주 여성의 삶을 ‘어머니’라는 단일한 역할과 젠더 서사에 국한함으로써, 이들의 복합적인 주체성과 노동, 젠더화된 이주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물젠더적인 재현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노선희(2023)가 지적했듯, 박물관 전시가 ‘일원적이고 특정한 젠더 중심의 서사’를 구성할 경우 오히려 ‘물젠더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이주 여성들의 다층적인 삶의 맥락을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박물관이 “선조들의 성공적인 정착 과정을 통해 유입 이민자들에게 국내 적응의 본보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김상열 2013)는 여전히 특정 ‘성공’ 서사를 강조하며 이주자 개인의 복합적인 경험이나 어려움을 축소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권용석(2018)의 지적처럼 “모든 개인과 집단의 요구를 다 수용하여 전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누가 더 고통받았고 누가 더 결백한 희생자인지 경쟁하는 희생자들간의 경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민사박물관이 포괄적 이주사 박물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고통을 성공이라는 틀 안에 편입시키려는 관제 기억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억과 고통을 균형 있게 재현하는 섬세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4년 열린 ‘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설명 위주의 나열식 전시 방식과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된 것은, 박물관이 기존의 민족주의적이고 ‘출발 신화’

중심의 서사라는 구조적 편향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외부적 비판이 고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 할 수 있다. 이에 박물관은 재외동포청 개청이라는 국가적 이벤트와 맞물려, 미래 비전을 담은 야심 찬 추진 목표를 제시하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시된 목표들, 즉 ‘한국 이민사 플랫폼’ 구축, ‘콘텐츠 강화 도시’로의 자리매김, ‘재외동포들이 머물고 싶은 인천을 위한 중심기관’ 등은 인천시가 도시 정체성을 ‘최초, 최고 도시’에서 ‘환대의 도시(City of Welcome)’¹³⁾로 확장하고, 재외동포청 유치라는 국가적 상징성을 박물관 확대를 통해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 공식 기억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범위 확대, 해외 시민 포용, 참여적 방식 등)과 함께, 가장 최근인 2025년 8월 발표된 연구용역에서는 ‘이민사를 공감하고 현재와 미래를 소통하는 이민사박물관’이 비전으로, 콘셉트는 ‘해외시민의 역사와 인천의 미래’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비전과 콘셉트는 ‘나가는 이민’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 ‘들어오는 이민’의 맥락까지 포괄하려는 긍정적인 담론적 전환을 시도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세계 초일류 도시’ 목표와 ‘국내 유일한 이민사박물관 독점 교육/연구기관’이라는 일등 지상주의적 수사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관제 기억이 다층적 이주 현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하되, 궁극적으로 도시 권력의 전략에 복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국내 유일한 이민사박물관 독점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개편의 핵심으로 삼거나, 연구 분야에서 ‘국내 유일한 한국 이민사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는 것은, 박물관의 구조적 편향성을 비판적 성찰을 통해 해소하기보다 ‘출발 신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천의 ‘유일성’을 내세우고, ‘환대’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딩 전략을 통해 포괄적 민족주의적 서사로 재구성하는 기획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나가는 글

이민사박물관의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는 특정 시점과 지역에 초점을 맞춰 ‘공식 이민사’를 구축하고 재현해 왔다. 특히 인천과 하와이 이민의 관계를 ‘인하관’을 통해 공식화함으로써,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미주 이민사의 연관성을 공공의 기억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박물관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특정 역사적 사실을 선별하여 공동체의 집단 기억으로 승격시키고

13) 이 표현은 2026년 제14회를 맞은 ‘디아스포라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화제 주관 기관인 인천영상위원회는 인천을 ‘환대의 도시’로 정의한다. 영화제는 인천을 “식민지 조선을 떠난 재일조선인과 고려인, 한국전쟁의 실향민과 이산가족, 산업화 시기 독일로 떠난 재독한인간호사와 광부 등 한인 디아스포라를 비롯해 난민, 추방, 실향, 이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주를 겪는 소수자들의 이야기까지. 한 세기의 기억을 통해 떠나고 들어오는 많은 이들의 설렘과 슬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함께 품는 도시, 하늘과 바다를 통해 들어온 다양한 정체성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이곳”이라고 소개한다. 이는 앞서 본문에서 분석한 이민사박물관의 확대 개편 목표와 마찬가지로, 인천시가 ‘출발 신화’를 넘어 이산(離散)과 들어오는 이민(Immigration)을 포괄하여 도시의 문화적/경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공식 기억의 정치가 ‘환대의 도시’ 브랜딩을 통해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식화하는 박물관의 권위적 기능을 드러낸다. 박물관은 과거의 무수한 사건과 기억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고 배열함으로써 하나의 공식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를 통해 방문객들이 특정한 역사 인식과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내면화하도록 유도한다. 이 점에서 이민사박물관은 기억을 보존하는 중립적 공간이라기보다, 기억을 선별하고 제도화하며 도시 정체성의 정당성을 생산하는 문화정치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공식화 과정은 이민사의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고통스럽거나 복합적인 기억, 비주류적 이주 경험, 그리고 동시대 인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주자들의 다층적인 정체성은 현재의 전시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거나 주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박물관이 공공의 기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선택과 배제의 정치학’을 명백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복잡하고 유동적인 이주 역사를 단일한 민족 서사나 국가 기획의 틀에 포섭하려는 시도는 재현의 폭을 축소시키며, 이주의 복합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딜레마를 낳는다.

현재 이민사박물관의 전시는 인천을 비롯한 동시대 한국에서 문화적·민족적 경계를 넘나들며 일어나는 복합적인 이민 현상과 그 얽혀진 역사를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박물관이 과거의 유산만을 보존하는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사회적 변화와 다문화적 현실을 반영한 기억의 공간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기존 전시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최근 진행된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확인된다. 이 용역의 내용에는 박물관의 전시 주제를 미주 중심에서 전 세계 한인 이민사로 확대하고, 인천이 재외동포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재외동포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박물관의 기능적, 서사적 확장을 위한 다각적인 구상(경인일보 2024/7/30)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민사박물관 역시 기존 전시의 제한적 서사 구조를 인지하고, 탈국가적이고 다층적인 이주 현실을 포괄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실제 인천시는 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위치에 박물관을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전세계 한인 이민사를 망라하는 종합 이민사박물관으로 범위를 확대해,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강화된 재외동포에 대한 환대의 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도는 박물관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기억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며, 단순한 과거의 재현을 넘어 현재에도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공간으로의 변화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은 ‘20세기 초 한인의 서구사회 진입만을 다루는 것을 넘어, 20세기 전체를 포괄하는 역사박물관으로서 한인의 디아스포라가 복합적으로 재현된 공공역사의 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노선희 2023).

이전 논쟁과 별개로, 이민사박물관은 과거 역사의 보존을 넘어,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와 다문화적 현실 속에서 ‘기억의 공간’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인천이 개항도시로서의 정체성에 기대어 강조 중인 ‘출발 신화’를 넘어, 다양한 이주 경험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박물관 전시 내러티브에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포함한다. 나아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실패, 혐오, 젠더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인구다양성 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에서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인천이 현재 한국 사회의 인구 다양성과 이주 현실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민사박물관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된 이주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과거 이민사의 기념 공간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이주 경험까지를 포괄하는 ‘기억의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이민사박물관은 이주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함의를 탐색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용석. 2018. 「인천 박물관들 속 기억의 정치와 정체성 만들기: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도시연구 13: 287-317.
- 김상열. 2013. 「이민사박물관의 이주역사 유물수집방안」. 2013년도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발표자료.
- 남근우. 2024. 「이민사박물관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국립화 방안」. 인천: 인천연구원.
- 노선희. 2023. 「이민사박물관에서의 젠더 재현에 관한 논의: 한인 사진신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91: 143-175.
- 안종욱. 2025. 「인천의 주요 도시 이미지로서 '서울의 위성도시'의 형성 및 변화 과정」. 한국지리학회지 14(2): 163-184.
- 오미일·배윤기. 2009. 「한국 개항장도시의 기념사업과 기억의 정치 -인천의 집단기억과 장소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83: 45-81
- 이용일. 2020. 「민족적 상상과 글로벌 현실 사이의 이민사박물관」. 현대사와 박물관: 138-147
- 인천광역시. 2020. 「이민사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시공문화.
- 인천광역시. 2024.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발표자료.
- 최은영. 2013. “그들도 한국인이다.” 플랫폼 통권 41호. 인천문화재단.
- 최혜진·안수인·김주리·곽윤경·최선영. 2025.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캐롤 던컨. 2015. 『미술관이라는 환상: 문명화의 미래와 권력의 공간』. 김용규 (역).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 피에르 노라. 2010. 『기억의 장소 1』. 강희진 등 (역). 서울: 나남출판.
- Bennett, T. 1995.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London: Routledge.
- Macdonald, S. 2015. Museums, National, Postnational and Transcultural Identities. *Museum & Society* 1(1): 1-16. (<https://doi.org/10.29311/mas.v1i1.3>)
- “마계 인천”이라니...방치할 수 없는 인천 이미지.” 경인일보 (사설). 2016.5.17. <https://www.kyeongin.com/article/1075259> (검색일: 2025년 9월 19일)
- “역사성 무시한 한국이민사박물관 송도 이전” 인천일보 (사설). 2024.7.31.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305> (검색일: 2025년 9월 25일)

김창수. “디아스포라영화제가 남긴 질문.” 경인일보. 2025.5.27.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1060> (검색일: 2025년 9월 19일)

목동훈. “데스크칼럼 ‘마계(魔界) 인천’이라 불러야 하나.” 경인일보. 2022.2.6. <https://www.kyeongin.com/article/1580486> (검색일: 2025년 9월 7일)

박현주. “한국이민사박물관 전시범위 전세계로 확대.” 경인일보. 2024.7.30.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2880> (검색일: 2025년 9월 30일)

양진채. “인천문화 40년을 듣는다 - 황흥구, 하와이·인천 미술교류전에서 이민사박물관까지.” 인천in. 2022.11.24.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63> (검색일: 2025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인천시, 재외동포 친화도시 조성 재결심” 보도자료. 2024.6.20.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10154540 (검색일: 2025년 10월 14일)

디아스포라영화제 홈페이지(<https://www.diaff.org/kor/default.asp>)

한국이민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museum/MU040101>)